

다이빙 희망 봤다 ... ‘수영의 꽃’ 경영서 개최도시 위상 보여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일 중간 결산

성적도 흥행도 저조 ... 노쇼 대책 세우고 수영 저변확대 시급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중반 전에 접어들면서 ‘수영 강국’ 들 간 메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구경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김수지(21·울산시청) 선수가 여자 1m 스피링보드 다이빙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해 간신히 개최국 체면치레는 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인구 저변 확대와 경기시설 확충 등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3·4·22면〉

대회 운영에서 있어서는 대회 개막 7일
째인 18일 현재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대
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 경기장에 '노쇼'로 반 좌석들이 크게
늘어 피는 등 대회 준비작업의 행정적작
업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월
드컵, 올림픽과 달리 이번 대회는 중계권
문제로 인해 국내 공중과 방송 한 곳이 중
계를 독점한다. 생중계 편성 시간마저 적
어 대회 분위기가 좀처럼 고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나오고 있다.

수구와 오픈워터는 그동안 대표팀조차
없었으며, 대회 개최국으로서 참가 자격을
얻으면서 대회 개막을 1~3개월 앞두고 대
표팀이 꾸려졌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개최
국인데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까지 두드러
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무한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수영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경기장 시설 등이 크게 부
족해 수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수영 선수 저변 확대, 경기장 확충 시급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여전히 '수영 강국'들의 메달 싸움이 현상이어서 이렇고 저렇다. 다이빙은 중국이, 아티스틱은 러시아가 '독주'하고 있고 오픈워터 경기는 독일이 강세를 보였다. 중국은 이번에서부터 금메달 13개 중 현재 9개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아티스틱수영에서 10개 금메달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인 5개를 획득했다. 아티스틱은 19일과 20일 프리로уп에이션과 팀프리 경기가 결승이 열릴 예정이어서 러시아의 금메달 사냥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종목에서 조강세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올해 기준 등록 수영선수수는 총 3340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비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다이빙 선수수는 5%에 불과한 168명 뿐이다.

◆흥행 저조...수영연맹 준비 부족 지적
=대회 개막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대회 흥행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기장에 빈 좌석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이번 대회 입장권 판매는 100%를 넘어서는 등 개막 전부터 흥행이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입장권이 기업과 기관들의 단체 구매였다는 점에서 각 경기장마다 입장권 '노쇼'가 속출하고 있다.



5.18민주광장 ‘한반도 평화 손잡기’

1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손잡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 모양을 만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특히 사전에 대회나 종목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낯선 종목을 대하는 일부 관람객들의 비매너 응원과 지적되고 있다. 학생과 주민들의 단체 관람 등으로 일부 경기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각 경기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 점도 대회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대한수영연맹이 후원사와의 계약 차질로 인해 다이빙 대표팀이 'KOREA'라고 쓴 테이프를 부착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고, 오픈워터 수영 대표팀이 매직펜으로 'KOR'이라고 적은 수영모자를 쓰고 출전하는 등 대회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초당 협력 ... 피해 최소화 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중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상황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5면〉

〈관련기사 5면〉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풍 '다나스' 내일 오후 여수 관통할 듯

남해안 150~300mm 폭우

한반도로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 (DANAS)'가 오는 20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를 관통해 지나간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다나스는 20일 새벽 서귀포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통과한 후, 20일 오후께 여수를 정면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마전선에 열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생해, 광주·전남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남해안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된다.

20일 밤까지 광주·전남 내리는 비의 강수량은 50~150mm, 남해안 지역에는 150~300mm로 전망된다. 특히, 여수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해 7명이 숨지고, 2000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적이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1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270km부근에서 북상중이다. 중심 기압은 990hPa, 최고 초속 24m로 소형 태풍이다. 강풍반경은 230km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리 1.5%로 인하

한은, 0.25%포인트 내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려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포인트 ↓)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은 측은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조정
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
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
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GWANGJU 2019
FIFA
WORLD
CHAMPIONSHIPS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
선수권 7.21.~7.28.
마스터즈 8. 5.~ 8.18.

예술로모치

한 여름밤은 酒求長昌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에서

7월 7일 찾아와

토요일 저녁 7시 ~ 11시

7월 13일/ 20일/ 27일, 8월 10일/ 17일

예술의 거리 중앙무대

※우천 시 행사 취소

문의/062-229-0223 <https://blog.naver.com/gung-dong1987>

주최 대표사 아시아문화콘텐츠지원네트워크 공동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 두일한방병원 운영 빛나는거리예술로공동사업단